



990원 빵 출시에
베이커리 시장
가격 논란
L1



Life

현대차 정몽구재단
아시아 기후기술
글로벌 확산 지원
L4



사회적 가치 93조... ESG 신념,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다

〈2018년부터 추적〉



SK그룹

경제적가치-사회적가치 동시 추구
ESG 바탕으로 구체적인 성과 만들어
지난해, 사회적가치 약 16.8조 창출

SK그룹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서 글로벌 최상위권을 이어가며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단순히 재무적 성과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전략이 실제 성과로 입증되면서, ESG 경영의 글로벌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개최된 SOVAC 2025에서 최태원 회장은 성과 기반 보상 구조와 협력적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기업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직접 뛰어들어야 하고, 그 성과를 계량화해 공정하게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기업 이미지 제고 차원을 넘어, 기업 경쟁력 자체가 사회적 가치 창출과 맞물려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DBL 성과와 자회사별 ESG

SK그룹은 경제적가치(EV)와 사회적가치(SV)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더블바텀라인(DBL·Double Bottom Line) 경영 철학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SK그룹이 창출한 사회적가치는 약 16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그룹의 영업 성과만큼이나 의미 있는 수치로, 사회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기여를 수치화해 보여준 것이다. 첫 측정을 시작한 지난 2018년 이후 지금까지 누적된 사회적 가치 창출 규모는 무려 93조원에 이른다. 사회적 가치 창출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실질적으로 기업의 시장 경쟁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자회사 차원에서도 ESG 경영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ESG 경영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한 '2025년 MSCI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한 것이다. 이 등급은 국내 에너지 기업 중에서도 유례가 드물고, 글로벌 주요 에너지 기업과 비교해도 최상위 수준으로 꼽힌다. SK이노베이션의 ESG 성과가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반도체 계열사인 SK하이닉스 역시 탄소 중립 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2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023년에 열린 'SV 리더스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SOVAC 2025'가 25일~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1만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 마무리됐다.



박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첫째줄 왼쪽에서 8번째)와 경영진 및 협력사 임직원들이 지난달 이천 본사에서 기술혁신기업 8기 협약식 및 7기 성과 공유회를 가졌다.

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에 가입한 SK하이닉스는 2022년 산호세, 우시, 충칭 등 주요 해외 사업장에서 이미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달성했다. 더 나아가 공정가스배출량은 오는 2030년까지 4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2022년 기준으로만 약 1만2000톤(t)을 줄였다. AI 기반 설비 제어 시스템을 통해 약 142억원의 전력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도 보였으며, 협력사와 공동 개발한 '이너히터' 장비는 배관 전력 소비를 절반 이상 줄여 친환경성과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SOVAC을 통한 확산과 협력 플랫폼

SK그룹의 ESG 경영철학은 최태원 회장의 신념에서 비롯된다. 기업이 단순히 이익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경영 성과에 반영해 사회 전체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철학이다. 이는 '사회적 가치가 곧 기업 가치'라는 관점으로, SK그룹 전반의 전략과 실행에 녹아 있다.

실제 실행 사례도 적지 않다. SK그룹은 지난 2020년 최 회장 주도 아래 8개 계열사가 RE100에 가입했다. SK주식회사를 비롯해 ▲SK텔레콤(SKT) ▲SK하이닉스 ▲SKC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SK

글로벌 시장서 ESG 성과 인정 받아
주요 사업장 재생에너지 100% 달성
2020년, 8개 계열사 'RE100' 가입

지속가능한 해법 위해 구조전환 나서
사회적 가치 창출 선도기업 위상 강화

브로드밴드 ▲SK아이이티테크놀로지 등 그룹의 핵심 계열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는 국내 대기업 가운데 최초 사례로, 다른 기업들에 ESG 실천의 모델을 제시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난 8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OVAC 2025는 SK그룹이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더욱 확산시키는 장이 됐다. 행사에는 1만여 명이 참석하고 180여 개 파트너가 참여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를 넓혔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원순환, 고령화, 장애인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SKT FLY AI X SOVAC Challenger' 경연이 신설돼, 청년 세대가 주도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는 계기를 마련했다.

행사 기간 진행된 기부 플랫폼 '카카오 같이가치' 프로그램에는 총 2만7000명이 참여했다. 아동 급식, 청소년 교육, 환경문

제 해결, 학교폭력 예방 등 다양한 사회적 의제에 대한 후원으로 모금액이 총 3000만 원에 달했다. 단순한 참여를 넘어, 사회적 가치 확산을 실질적 행동으로 연결시킨 사례다.

최태원 회장은 "복합적 사회 문제에 직면한 지금, 지속가능한 해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발상과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사회문제 해결에 성과를 내는 기업과 조직 혹은 개인이 더 많은 기회와 보상을 받는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문제 현황과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는 체계를 만들고, 성과 기반 보상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ESG 경영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제도적·구조적 혁신으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결국 SK그룹은 ESG 최상위 평가, 사회적 가치 금액화 제도, 자회사별 실행 성과, 그리고 SOVAC을 통한 협력 플랫폼까지 다층적인 성과를 축적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 선도기업'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 기업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의 핵심 축으로 사회적 가치를 내세우는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프로야구 롯데, 가나초콜릿 50주년 기념 특별 유니폼 출시
▲정해영, 복귀 후 첫 세이브 상황서 불륜...KIA 뒷문 어찌나
/사진 뉴시스

▲서울시체육회, 6일부터 서울-베이징 스포츠 친선교류대회 개최
▲대한체육회, 밝은눈안과와 함께 국가대표 안과 검진·진료 제공

▲2025시즌 2차 K리그1 팬 프렌들리 클럽상, 팬 투표 시작
▲'북중미월드컵 모의고사' 치르는 홍명보호...미국으로 출국